

#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8년 3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경,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118번(골고타 언덕)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주고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경 읽기: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경을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①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친다.
  - ② 사순절 생활 실천표에 따라 예수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동참한다.
  - ③ 다음 모임을 결정한다.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119번(주님은 우리를 위해)

## MEMO

## <교리 4>

### 1. 고통 · 악의 문제

- ① 성서는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 신앙인은 하느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또 인간에게 끊임없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며, 어떠한 악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는 고통과 비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악의 문제는 신비이다.
- ②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하느님은 악이 있기를 원치 않으시나 악이 있는 것을 허용하신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불행이 들어오게 한다.
  - 악의 문제는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는 살아 있는 문제다. 악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해명된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신비, 곧 예수님의 생애는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덜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 준다.
- ③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우리는 현세의 모든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윤리악(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의지나 나쁜 행위)을 조성하지 않으시고, 물리악(자연악)이라도 그 자체를 위해 원하시거나 허용치 않으신다.
  - 하느님께서서 만드신 세상은 좋지만 고정되지 않았고 상처받기 쉽다. 그러나 하느님은 위로자시다.

### 2. 악의 기원 (원죄)

- 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 타락의 이야기는 하느님께 대항한 인간의 첫 반항의 사실을 상징적인 말로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성서는 그 죄악을 주로 **교만과 불순종**이라고 말한다.
- ② 아담과 하와는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하느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하였다. 즉 하느님과 맺은 우정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 즉 전 인류에게 미쳤다. 이렇게 **첫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범한 죄를 원죄라고 한다.**
  - 각 사람이 물려받는 원죄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범한 죄와는 다르다.
  - 인간 본성은 타락하고 받았던 은총을 상실하고 본성적 힘도 손상되어 죽음의 권세에 예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 본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다. 원죄가 전달된다는 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성화은총(거룩하게 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은총)이 없이 그리고 성화 은총을 수반하는 특별한 은혜도 없이 창조된다는 뜻이다.
  - 인간이 당하는 많은 슬픔은 결코 원죄의 결과만은 아니다. 사실 인간이 당하는 가장 가혹하고 견딜 수 없는 불행은 거의 다 인간의 계속적이고 고의적인 죄악의 결과다.
  - 인간의 죄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죄를 범함으로써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남용하는 것은 인간이다.
- ③ 인간의 타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깨우쳐주는 것은 책임의 의미, 죄의 중대성 그리고 하느님의 길에 관한 것이다.
  -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이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유와 충분한 통찰력을 주셨다.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는 하느님이 강하시고 정의로우시며 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엄격하시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 아버지의 뜻을 택하신 예수님

유대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는 열 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다.

배반할 제자가 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신다.

그것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하신 인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었던 수난의 고통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당신의 의지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올리브 산에서 번민에 싸여 기도하실 때 정신없이 취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마침내 유대와 일행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넘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들의 그릇된 신앙으로 하느님을 단죄하고 있는 대사제와 불의인 줄 알면서도 사형을 선고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빌라도 앞에서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신다.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달아나고 자신있게 장담했던 베드로마저 용기를 잃고 신의를 저버렸다.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께서는 비통한 절규로 숨을 거두신다.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짐으로써 가로막혔던 하느님과 인간사이의 장벽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백인대장만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두려워 하였다.

예수님의 수난 죽음으로 마침내 성부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졌으며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기록들이 비로소 완성되게 되었다.

수난사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약한 존재들이요, 약한 존재들이요, 오늘날 예수님을 배반하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자신의 목적에만 눈이 어두운 유다, 사람들의 위협에 흔들리는 베드로, 진실이나 정의보다는 자신의 안정을 택한 빌라도, 자기의 독선적인 신앙으로 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대사제와 원로들, 위급한 상황에서 모두 달아나버린 제자들, 그 모두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수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으며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성주간을 앞두고 참다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베드로가 되어야겠다.

### <나눔>

- \* 겟세마니의 기도를 보고 당신은 기도할 때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으려 하십니까?
- \*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자.

## 무소유의 삶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공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즐거운 삶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한 많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만족할 줄 모르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늘 갈등상태에서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의 한 부분이다.  
적마다 독립된 개체가 아니다.  
전체의 한 부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한 부분이다.

세상이란 말과 사회란 말은 추상적인 용어이다.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개개인이 구체적인 사회이고 현실이다.  
우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던,  
혈연이든 혈연이 아니든  
관계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다.

